

연구논문

1970년대 지역노동운동과 산업선교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박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사회학 전공

missiondream@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0년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개된 산업선교 기반의 노동운동에 주목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산선)'를 고찰한다. 연구목적은 자원동원론적 관점에서 청주산선의 형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청주지역 노동운동에서 청주산선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청주산선은 1970년대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과 도시산업선교회 활동의 변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정진동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노동자 회원들의 구성, 외부 원조를 통한 자금 조달,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합법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사무실) 등과 같은 물질적 자원과 인간화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가치지향이 함께 결합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청주산선은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외곽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의미는 첫째,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대한 기여, 둘째, 노동자들의 인간화를 위한 생존권 쟁취 지원, 셋째, 노동자들을 연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산업선교, 청주지역, 노동운동, 지역노동운동

투고일 2026. 7. 3. 심사일 2026. 7. 29. 게재 확정일 2026. 8. 27.

Research Paper

Regional Labor Movement and Industrial Mission in the 1970s: The Cheongju Urban Industrial Mission

Park, Chul

Ph. D. Candidate,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issiondream@hanmail.net

Abstract

Taking the “Cheongju Urban Industrial Mission (Cheongju UIM)” as a representative case, this study focuses on the labor movement based on industrial mission work that unfolded in region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uring the 197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eongju UIM from the perspective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its activities within the Cheongju labor movement.

Cheongju UIM was formed amid the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of the 1970s and the evolving landscape of urban industrial mission society activities. The UIM took on a concrete form through the combination of new leadership under Jeong Jin-dong, the composition of its worker members, funding through external aid, the organization’s legal status—which allowed for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autonomy—and material resources such as a public office that was easily accessible to workers and served as a gathering place, alongside a value orientation toward “Missio Dei” centered on humanization and God’s justice. Cheongju UIM served as a supporting organization on the periphery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and its significance can be assessed as follows: first, its contribution to the consciousness-raising and organization of workers; second, support in securing workers’ right to survival for their human dignity; and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enabling solidarity and support for workers.

Keywords: Cheongju Urban Industrial Mission, industrial mission, Cheongju region, labor movement, local labor movement

Received July 3, 2026 Reviewed July 29,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머리말

한국의 노동운동은 해방 이후 침체기를 거쳐 197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노동운동에 대한 역사는 주로 경공업-여성-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반도상사, 삼원섬유, 남영나이론 등의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종교단체인 도시산업선교회(산선)의 활동이었다. 산선은 여성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이들의 민주노조 투쟁을 지원함으로써 1970년대 여성들의 노동운동이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위치한 영등포산업선교회(영등포산선)와 인천에 위치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인천산선)를 들 수 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 및 산업선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먼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을 문화적·정치적 측면으로 접근한 구해근의 연구,¹ 조선 말기부터 1987년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다룬 이원보의 연구,² 여성의 관점에서 성차별과 저임금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숨은 투쟁을 밝혀낸 이옥지의 연구³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조사 대상과 지역을 주로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김준,⁴ 김원,⁵ 홍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5762).

1 구해근(저), 신광영(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3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4 김준, 「민주노조운동과 교회: 개신교 산업선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위임, 『노동과 발전의 사회학』(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101~133쪽.

5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 『산업노동연구』 10-1(2004), 57~95쪽.

영,⁶ 장숙경⁷의 연구는 산업선교가 지닌 노동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있으며, 김명배⁸의 연구는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산업선교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1970년대 인천산선과 영등포산선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 인권운동 및 민주화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 사실만을 다루고 있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산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노동운동 및 산업선교 연구의 시각을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의 역사에 주목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지방 소도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으며, 이는 산업선교의 연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개된 개신교 노동운동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 사회 내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다지고 활발히 전개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산선)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주산선의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과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청주산선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자원동원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존 D. 매카시(John D. McCarthy)와 메이어 N. 잘드(Mayer N. Zald)는 사회운동이 비이성적인 감정과 불만에 의해 표출되기보다는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발생하며 운동의 성공은 자원(정당성, 자금, 시설, 노동력 등)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사회적 갈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수적인 것이며 집합적인 목적을 위해 자원이 동원되고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결집을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조직 형태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조직에 더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⁹

6 홍현영, 「도시산업선교회와 1970년대 노동운동」, 차성환 외,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375~447쪽.

7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서울: 선인, 2013).

8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 42(2015), 35~62쪽.

9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1977), p. 1216.

맥아담은 정치과정모델을 제시하는데,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기회, 자생 조직이 가진 고유의 조직적 역량, 그리고 인지적 해방(자신들의 상황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이다.¹⁰ 여기서 조직적 역량은 사회운동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동원의 역량을 의미한다. 조직적 역량 중에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으로, 운동 세력을 조직하고 이끄는 데 있어서 지도자나 조직가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운동 조직 내에서 지도부의 존재는 운동을 이끌어 갈 지적 자산과 조직적 역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¹¹

다음에서는 자원동원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주산선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적 상황, 사회운동조직으로서 청주산선이 갖는 자원의 역량(리더십, 인적자원, 자본 등), 인지적 해방과 같은 조직의 지향 가치를 살피고, 동원된 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적 기반 위에 청주산선이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II.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형성과 전개

1. 정치적 상황과 도시산업선교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7년 3선개헌 이후 1971년 힘겹게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섰다.¹² 그 결과 1972년 10월 26일 개헌안인 유신헌법이 공고되면서 유신시대가 시작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연장, 국회의석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대통

10 Doug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51.

11 *Ibid.*, p. 47.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2』(과주: 돌베개, 2009), 19~21쪽.

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정감사 폐지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박정희의 1인 독재 종신 집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¹³ 무엇보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쟁취한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권 초기인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¹⁴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육성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어 갔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 내에 산업노동자들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¹⁵

1970년대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이라는 정치·경제 지형의 변화와 함께 노동 통제에 대한 방식 또한 수정되었다. 군사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변화는 1969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1972년 유신헌법 발표(제29조), 1973년과 1974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¹⁶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정치경제 영역에서 노동자 조직의 행동과 참여를 차단하는 배제적 노동통제였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는 강력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특히 노사 갈등 관리에 있어서 그러했다. 경찰조직과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이 보장되었고, 사측의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과 횡포가 국가에 의해 조종, 묵인되었다. 또한 어

13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94~95쪽.

14 김대환, 「(군정30년-박정희시대를 해부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비평』 23(1993), 148쪽.

15 성공회대학교사회문화연구소,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 노동운동을 중심으로』(세종: 고용노동부, 2002), 13~18쪽.

16 이영철,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8-2(2004), 146~147쪽.

17 안병욱 외, 앞의 책(2005), 120쪽.

용화된 중앙 노조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방해공작이 전개되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한 국가의 이념적 통제가 수행되었다.¹⁸

1970년대 초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도시산업선교회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58년 ‘산업전도’라는 이름으로 교세 확장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활동이 1968년 ‘산업선교’로 전환되면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1968년부터 1972년을 산업선교의 중간기 발전과정으로 보는데 이 기간은 지난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전 조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경우 재정적인 이유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선교조직들이 약화되거나 중지된 반면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조직이 더욱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선교 활동이 더욱 확장되어 갔으며 인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동서울, 영등포, 함백의 광산지대, 대전, 부산 등지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총회적인 사업으로 동인천 도시산업선교센타가 시작되었고 안양에서도 확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공회와 구세군은 그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다.¹⁹

산업선교의 발전과정에서 연합활동들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1964년 5월 산업전도 활동이 각 교단별로 성장하면서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 성공회 대표가 모여 실무자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산업전도 실무자들의 모임을 시작했다. 1966년 1월 한국산업전도실무자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1971년에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로 개칭하게 된다.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는 산업선교에 종사하는 각 교단의 실무자들의 친목과 산업선교에 관한 연구, 실무자 훈련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산업선교 실무자들 간의 연대활동과 함께 1971년 9월 26일에는 산업선교, 도시선교(빈민선교), 학생청년선교 단체들이

18 유종일, 「박정희 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노사개혁의 방향」, 『한경제발전연구』 3(1997), 90쪽; 김용철,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2011), 201쪽.

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교회와 도시산업선교』(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1981), 106~108쪽.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노동자, 도시빈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크리스찬사회행동협의체를 조직하게 된다. 이 조직은 신구교, 즉 가톨릭 측 4개 단체와 개신교 측 6개 단체가 연합해 형성된 조직으로서 1972년에는 에큐메니칼현대선교협의체로, 1975년에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가며 활동하다가 1976년 9월 25일 해체하게 된다.²⁰ 청주산전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도시산업선교 활동의 배경하에서 1972년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2.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사회운동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서 리더십은 핵심 자원 중 하나이다. 청주산전의 출범 역시 산업선교회 실무자의 참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직 구조상 실무 목회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도시산업선교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실무자 개인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선교회 활동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했다.

청주산전은 정진동 목사가 실무자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진동은 1933년 12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라는 농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안은 매우 가난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느라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가 유일하게 배움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은 어머니를 따라서 다니게 된 교회였다. 이후 19세에 스스로 입학금을 벌여 청주지역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성경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대한신학교의 야간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했다. 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야간신학교 4학년 때 단국대학교 사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게 된다.²¹ 그 과정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고된 노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그는 가난한 삶에서 교육에 대한 열망과 노동에 대한 역경을 겪으며 민중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위의 책(1981), 57~60쪽.

21 정진동, 『저 평등의 땅에』(청주: 한술, 1992), 6~16쪽.

정진동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농촌목회를 시작했다. 약 14년 동안 농촌목회를 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농촌계몽운동이었다.²² 고등공민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교육을 농촌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을 실천한 이유는 “가난하고 못 배운 농민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²³이었다.

1969년 정부에서 중학교 무시협입학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운영 중이던 공민학교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²⁴ 그런 가운데 1972년 3월 정진동이 속해 있던 충북노회가 산업선교를 시작할 목적으로 영등포산업선교회 실무자인 조지송 목사를 초청해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동은 신학교 동기인 조지송 목사²⁵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선교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박해도 있으나 반면 약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문제를 보호할 때 기쁨도 있다는 내용”²⁶의 강연을 듣고 산업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조지송 목사의 강연은 정진동 목사에게 민중들의 아픔과 설움을 위한 길이 바로 산업선교라는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정진동에게 있어서 가난의 상처와 설움은 항상 크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더 가지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애착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그동안 시골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농촌선교를 실천해 왔는데, 조지송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그의 시선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 산업현장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로 향하게 된다.²⁸ 강연이 있

22 정진동, 위의 책(1992), 17쪽.

23 정진동, 위의 책(1992), 24쪽.

24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5쪽. 《오픈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 자료를 가리킨다(<https://archives.kdemo.or.kr>).

25 덕산교회 부임 후 정진동 목사가 다닌 신학교의 교단을 문제 삼아 장로회신학대학에 편입해 1년간 수학을 하였는데 이때 조지송 목사와 같이 졸업했다. 박만순, 『정진동, 공동체를 꿈꾸다』(청주: 고두미, 2025), 83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26 정진동, 앞의 책(1992), 35쪽.

27 정진동, 위의 책(1992), 52쪽.

28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은 후 충북노회에서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정진동이 이에 지원하였고 1972년 4월 실무자로 선정되었다.

실무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2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쳐야 했다. 훈련은 조지송이 원장으로 있는 ‘도시산업선교훈련원’에서 진행됐는데 정해진 교육내용은 노동체험 6개월, 행정실무 6개월, 노동문제연구소 6개월, 실무훈련 6개월 과정이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2년 과정을 그대로 소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진동은 1972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해 실무훈련을 위해 청주산업선교회로 내려온 1973년 6월 전까지 노동체험, 행정실무, 노동문제연구소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²⁹ 노동체험은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 취직해 오로지 노동만을 하는 훈련이었다. 행정실무는 영동포산업선교회에서 산업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다. 노동문제연구소에서는 학술교육을 받았는데 노동문제, 경영문제, 산재문제, 노동자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었다.³⁰ 그는 이 훈련을 통해 산업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성서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예수의 민중을 향한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³¹ 아울러 산업선교 실무자 훈련을 거치며 조지송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청주산선 활동의 역동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³²

3. 자원동원과 운동의 전개

마지막 훈련 과정은 실무훈련이었다. 실무훈련은 실제로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산업선교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청주도시산업선교회는 1972년 4월에 출발하였지만 정진

29 1972년 4월~1973년 1월까지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를 자필로 정리한 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10~16쪽; 정진동, 앞의 책(1992), 35~37쪽; 박만순, 앞의 책(2025), 95~98쪽 참고.

30 정진동, 위의 책(1992), 61쪽.

31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8쪽.

32 정진동, 앞의 책(1992), 36~37쪽.

동 목사가 실무훈련을 시작하는 1973년 6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사무실은 청주 실내체육관 앞 건물 2층에 자리 잡았으며 6월 18일 개관예배를 했다.³³ 당시 청주는 1960년대 말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며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15만 인구에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약 2만여 명에 달했다.³⁴ 청주산선은 청주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³⁵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운동에 필요한 자원들이 동원되고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직면한 사건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청주산선 활동에 동원된 자원들을 살펴보면서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인 조직 구성원들의 모집과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진동이 청주산선에서 실무훈련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사람들은 청주시청 청소부들이었다. 다른 지역의 청소부들 보다 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청소노동자 170여 명이 산업선교회 첫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다.³⁶ 청주산선은 이처럼 인권침해를 받고 산업선교회를 찾은 노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구성원이 되었다.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회원들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1980년대 실무자로 근무하였던 이유근 씨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늘상 야속하게 생각되는 것은 교회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노동자 농민들이 그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를 외면하는 알박한 인정이란 것입니다.”³⁷ 즉, 노동자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산선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산선과 관계를 맺지만 일이 해결된 후에는 떠나갔다는 것이다. 청주산선의 인적구성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33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1쪽.

34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충북민주화운동사』(서울: 선인, 2011), 151쪽.

35 청주산선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농민, 지역 주민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여했는데 여기서는 산업선교의 주된 활동인 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만 정리했다.

36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16~18쪽.

37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23~24쪽.

표1-연도별 사건목록

연도	사건	대상
1973	근로조건개선	청주시청(청소부 170명)
	퇴직금	청주시청(청소부 정운탁, 이정우)
1974	체불임금	서원실업(연재갑 외 35명)
	산업재해	연초제초장(박성화)
1975	체불임금	과산광석(연만희)
	퇴직금	삼진기업(김태안 외 13명)
	부당해고	신흥제분(한월한 외 2명)
	노조설립	신흥제분
1976	퇴직금	정주주물(강대웅), 산림조합(이선자), 만장광산(김은수 외 60명)
	체불임금	주택공사(백중구 외 5명)
1977	퇴직금	보광금속(이옥자, 노재범 외 3명), 신성금속(박이진), 신흥제분(유진환, 김동원), 원예협동조합(유연수), 청주주물(조용현), 대성성냥공장(연갑식, 박희용)
	체불임금	신흥제분(강승수), 경동금속(구자남)
	부당해고	한국갈포(송영광, 박재홍, 정진구)
	노조설립	한국갈포(관계 근로자 300명)
1978	체불임금	경동금속(김학렬), 제천주물(심형섭, 김연하)
	근로조건개선	삼화물산(관계 근로자 25명)
	부당전출, 정직	조광피혁(김병하), 삼화물산(강성용)
	퇴직금	제천주물(허병렬)
	산업재해	동림기공(유이선)
	부당해고	삼화물산(정재균), 대농교회
	단식투쟁	신흥제분, 조광피혁, 농민
1979	산업재해	세계벽지(양록순), 럭키동래공장(박용인), 수원제일판지(신석규)
	퇴직금	청주시청(최달섭), 현대건설(김용훈 외 24명), 증평공업고등학교(양철옥), 전국타일상사(박노봉), (윤장환 외 7명)
	체불임금	대한통운(김기환 외 6명), 이리여객(조남순 외 9명),
	부당해고	경동금속(민순기), 삼화물산(한천동), 대성여객(이팔용 외 18명), 대성여객의 소주주 착취문제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1976년 노동교회를 시작하며 15명이 모였고, 1977년에는 80명의 근로자가 등록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는 평균

30명이 출석하였다.³⁸ 1981년 보고서에는 청주산선의 노동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90명(노동자 30명, 농민 10명, 주부 10명, 대학생 5명, 초중고생 35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⁹ 이 교인들은 노동문제, 농민문제로 투쟁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학생들은 산업선교회에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었다. 교회의 교인들이 결국 산선의 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970년대 각각의 사건을 겪으면서 청주산선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이 산선 회원으로 남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산선회원들의 변화와 함께 실무자들의 변화도 있었다. 선교사업이 늘어나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실무자의 보충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는데 이에 따라 조순형 전도사가 여성 실무자로 1977년 부임하게 된다. 조순형은 정진동의 처제로, 많은 영향을 받은 형부를 따라 실무자가 된 것이다.⁴⁰ 1970년대 후반을 정진동, 조순형 2명의 실무자가 함께 이끌어 가다가 1980년에 들어서며 업무량이 더욱 많아지게 되자 1978년 청주산선에 찾아와 회원으로 활동하던 이윤킨을 실무자로 한 명 더 채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산선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5년간 일하다 기독교농민회 충북총무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⁴¹ 청주산선은 소수지만 이렇게 형성된 인적 자원들이 함께 협력하며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자금에 대해 살펴보면, 청주산선이 처음 시작된 때에는 노회와 지역의 일반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절한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3년 활동보고서⁴²에 따르면 노회에서 사무비를 지원받았고, 교회 헌금으로 13개 교회가 지원했으며, 외부보조로 훈련원, 중앙위원, 목사들, 주한 미선교사, 한국도시선교연합회 등에서 후원을 했다. 하지만 이후 충북노회에서 청주산선의 상급 조직인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청주산선이 자립하게 되면서 경제 사정은 어렵게 변하게 된다. 청주산선의 청주시청 청소노동자 근로

38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보고서(1977.1.1부터 1977.12.31까지)」, 《오픈아카이브》, 1977년 9월 30일, 1쪽, 3쪽.

39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쪽.

40 「조순형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17년 7월, 5~6쪽.

41 정진동, 앞의 책(1992), 57~58쪽;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말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23쪽.

42 「1973년도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73년, 21~22쪽.

개선 투쟁에서 노동자 당사자들을 제외한 청주시청과 충북노회 산업선교위원회의 일방적인 합의에 반발하며 정진동 목사와 위원회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⁴³ 이 과정에서 청주산선을 주목한 중앙정보부의 해체 압박이 가해졌고, 결국 1974년 4월 충북노회는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하고 실무자 급여를 차단하였다. 정진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넘마주이를 시작하였는데 조지송의 도움으로 다시 산선에 복귀할 수 있었다. 조직의 위기 속에서 청소노동자 중심의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가 청주산업선교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청주산선을 지원하게 된다.⁴⁴

산업선교위원회가 해체되고 청주산업선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조지송이 원장으로 있던 산업선교훈련원에서 청주산선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⁴⁵ 또한 주한 선교사들, 총회 전도부 목사, 영락교회, 국내 산업선교 실무자들(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등)이 청주산선을 후원하기도 하였다.⁴⁶ 1976년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서⁴⁷를 보면 수입내역에 활빈교회, 가정봉사회, 사회선교협의체, 충북노회 등에서도 활동비를 보내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주지역 기독교장로회 청년, 학생들이 청주산선을 돕기 위해 작은 천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밥)을 먹일린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문구를 적은 페넌트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⁴⁸ 1976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제출한 프로젝트가 통과되어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독일교회와 영국교회로부터 온 헌금이 청주산선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처럼 청주산선은 노회와

43 정진동, 앞의 책(1992), 60쪽;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2011), 157쪽.

44 정진동, 위의 책(1992), 60~62쪽;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4쪽.

45 정진동, 위의 책(1992), 61쪽.

46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사업활동보고서와 1975년, 1976사업비 보조청원서」, 《오픈아카이브》, 1976년, 3쪽.

47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1쪽.

48 박만순, 앞의 책(2025), 133쪽.

49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7쪽;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5쪽; 정진동, 앞의 책(1992), 56쪽.

결별 후 독립적인 운영을 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헌금과 주위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 국가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허락되지 않던 엄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청주산선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데는 그 단체가 가진 합법적인 성격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억압을 받아 왔지만 합법적인 법적 상태는 유신정권이라는 독재권력의 탄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청주산선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지위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상징성이 지닌 독특한 역할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보수교회는 급격한 교세 확장과 정권에 대한 암묵적 혹은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성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청주산선은 기독교 종교단체로서 이러한 보수교회의 상징적 보호막을 공유하는 동시에,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국내외 에큐메니칼운동 진영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독자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인 활동이 갖는 큰 이점 중 하나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주산선이 공개적인 사무실을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장소 또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의 감시와 처벌이 엄중하던 시기 청주산선의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를 보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 노동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고통을 토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요한 장소였다. 청주시청 청소부들과의 근로조건개선 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 청주산선에 대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선교를 찾아왔다.⁵⁰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공개적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노동자들을 교육, 조직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압력으로 인해 수차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 <표2>는 청주산선의 사무실 이전을 정리한 것이다.

50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32쪽.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북노회와 결별하고 사무실을 정진동 목사 자택으로 이전한 후에는 임대 기간이 거의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의 잦은 이사 이후 영국교회와 독일교회의 지원을 받아⁵¹ 1980년 부지를 매입하고 12월에 산업선교회관을 완공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 된다. 1980년에 선교회관이 건축되기 전까지 일곱 번이나 사무실을 옮겨 다녔던 이유는 사무실을 얻으면 국가기관 요원들이 찾아와 건물주를 협박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었다.⁵²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객관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어떠한 가치와 의도를 가지고 운동에 임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주산선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알리는 팸플릿을 보면 산업선교의 성서적 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산업선교는 개인적인 사상이나 이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 구약 성서 원리에서 (누가4:18, 신명기24:14~15)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어 고통당하며 고뇌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업화가 되어 가는 오늘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힘겨운 노동과 약한자들의 비인간적

표2-청주산선 사무실 이전⁵³

일시	내용
1973.06.18	청주실내체육관 앞 2층에 건물을 임대해 개관
1975.11.	정진동 목사 자택으로 이전
1976.01.25	고속터미널 천연사이다 건물 2층으로 이전
1976.03.03	서문시장 만물상 건물 2층으로 이전
1977.05.12	사직동 사거리로 이전
1978.02.12	북대동 청주고등학교 앞 2층 건물로 이전
1979.04.	영운동 시장주유소 앞 2층 건물로 이전
1980.05.22	부지매입 건축기공예배(청주시 사창동 248-4번지)
1980.12.01	산업선교회관 완공 및 개관예배

51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5쪽.

52 정진동, 앞의 책(1992), 103쪽; 박만순, 앞의 책(2025), 77쪽.

53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青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3~4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1~12쪽 참고.

인 천대와 부당한 대우에 기독교가 침묵을 지키다면 죄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약한 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주며 권리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를 이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이 본 산업선교회 성서적 기반이다”라는 것이다.⁵⁴

청주산선이 지향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성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인간화’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W.C.C. 회의를 통해 정립된 ‘인간화’와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화’는 오늘날 산업구조 속에서 비인간화되는 현상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화 개념은 개인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개인구원의 의미를 넘어 정치적·경제적 억압, 사회적 소외, 인권의 박탈 등과 같은 모든 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는 사회구원을 뜻하는 것이었다.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의의 회복, 소외된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 인류의 생명과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의미하였다. 독재정권 시기 W.C.C.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진영에 이러한 개념이 수용되어 인간화, 하나님의 정의, 민중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실현해 나가는 데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⁵⁵ 그 같은 선교적 지향을 ‘하나님의 선교’라 부르며 이는 당시 한국 도시산업선교가 추구했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청주산선은 이러한 물적 자원과 이념에 입각해 1970년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노동교회의 운영, 의료선교, 노동자들의 당면한 문제 논의, 노동교육, 여성 근로자들의 교양활동과 취미활동, 성서연구모임, 야유회와 같은 친교와 대화 모임, 노동절 행사 등⁵⁷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한 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참석했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11월 27일 정진동, 조순형 두 실무자가 모두 구속되었는데, 조순

54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4쪽.

55 연규홍, 「WCC 50년 역사의 발자취」, 『신학사상』 103(1998), 93~96쪽.

5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앞의 책(1981), 115쪽, 170~171쪽.

57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형은 12월 27일, 정진동은 1980년 1월 23일 석방⁵⁸된 이후 다시 청주산선의 활동을 이어 가게 된다.

Ⅲ. 충북지역 노동운동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1. 의식화와 조직활동

청주산선은 청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갔다. 이번 장에서는 충북지역 노동운동에서 청주산선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짚어 볼 것이다. 청주산선의 역할은 한마디로 외곽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현장 밖에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 적절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곽지원 활동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대한 기여, 둘째, 노동자들의 인간화를 위한 생존권 쟁취 지원, 셋째, 노동자들을 연대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 등이다.

먼저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청주시청 청소부 근로조건개선 투쟁에 있어서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청소노동자 170명을 대상으로 노동자민주의식 개발을 위한 교육을 1973년 6월 21일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⁵⁹ 교육을 통해 본인들이 처한 노동문제를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조건개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청소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지 않았기에 대신 대책위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청소부들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대책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유재향은

58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4쪽.

59 「사업비신청서[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귀중]」, 《오픈아카이브》, 1973년 9월 26일.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⁶⁰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부들이 교육을 통해 의식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온갖 부당한 대우에도 못 배운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 왔다. 그러나 정진동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동료 청소부들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정면으로 부딪혀 싸웠다.”⁶¹는 유재향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3년 8월에 시작해 1974년 2월까지 계속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임금을 48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할 것, 휴일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만들 것)는 모두 관철되었고, 투쟁 중에 해직되었던 대책위원회 회장 유재향과 총무 최명식 또한 복직함으로써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⁶² 이 일이 있은 후 청주산업선교위원회가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소노동자들에 의해 산업선교 재개를 위한 산업선교대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유재향이, 부위원장은 최명식이 맡게 된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⁶³ 이 같은 사례는 청소부들이 청주산업선교의 활동을 통해 의식화되었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청주산업선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신흥제분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⁴ 신흥제분 사건은 신흥제분주식회사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투쟁한 사건이었다. 과도한 업무, 저임금, 임금체불(퇴직금) 등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1974년 12월 청주산업선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된다. 1975년 3월 25일 정진동의 지도로 노동

60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5~16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17~18쪽.

61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6쪽.

62 정진동, 앞의 책(1992), 44쪽.

63 정진동, 위의 책(1992), 61~62쪽.

6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서울: 풀빛, 1984), 335~341쪽; 정진동, 위의 책(1992), 82~86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8~23쪽 참고.

자 12명이 ‘신흥제분근로조건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회사는 즉각 이들을 해고했다가 동요가 일어나자 4월 10일 모두를 복직시켰다. 노동자들은 사전 해결을 위해 노조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주산선과 논의 끝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진동이 일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조합원의 자세, 조합간부의 자세, 노동조합의 성격 및 일상활동 등이었다.⁶⁵ 1975년 4월 19일 신흥제분 노동자들은 청주산선의 도움을 받아 전국화학노조 신흥기업직할분회를 결성하고 분회장에 이완우를 선출했다.⁶⁶

이후 회사는 노조파괴를 위한 공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다. 노조 결성 직후 노조간부 12명 중 6명을 해고했다가 복직시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1975년 6월 하도급 회사인 신흥기업과 계약이 만료되자 새 하도급 회사 이름을 삼진기업으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핑계로 노조를 파괴하려 하였다. 노조는 이에 노조명칭을 전국화학노조 신흥제분내 삼진기업직할분회로 바꾸어 즉각 대응하였다. 이러한 탄압 가운데서도 청주산선을 통한 노동자교육은 지속되었다.⁶⁷ 1975년 9월 12일 회사는 또한 분회장 이완우에게 20만 원의 뇌물을 주고 노조 해체에 관한 약정을 맺었는데, 정진동의 회유로 이완우가 마음을 돌이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⁶⁸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5년 9월 23일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이러한 노조를 향해 11월 노조간부 12명 전원을 해고했다가 노조분열을 위해 복귀 의사가 있는 노동자 6명을 먼저 복직시키고 얼마 후 모두를 복직시켰다. 1976년 4월 삼진기업과의 계약을 종식하고 신흥제분 직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조합원들을 재취업하도록 하였는데 회사의 계략에 빠져 결국 취업규칙위반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이완우가 해고

65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4월분 활동보고건[수신:사회선교협의회체]», 《오픈아카이브》, 1976년 5월 6일. 이 자료를 보면 노조조직 전후로 계속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6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39~40쪽을 보면 한국노총 화학노조 본조에서 위임장을 받고 결성식을 하는 과정에 정진동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67 「합의서[청주도시산업선교회와 삼진기업노조]», 《오픈아카이브》, 1975년 8월 25일.

6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336~337쪽

되었다. 노조 측은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6월 복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산선과 함께 진정서, 항의서, 고발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회 간부 6명이 해고되었으며, 정진동은 신흥제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 이완우의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노조는 해고된 6명에 대한 복직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회사와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⁶⁹

홀로 남은 이완우는 정진동과 상의 끝에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리를 파헤쳐 공개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몰래 회사에 들어가 불법 현장(사료에 먼지와 물을 배합, 1등급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3등급 밀가루에 곰팡이 탄산칼슘 배합)을 촬영해 사회에 폭로하기도 하였다.⁷⁰ 이완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⁷¹ 청주도시산업선교위원회,⁷²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⁷³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시산업선교회 연합회⁷⁴ 등에서 호소문, 건의서, 진정서 등을 발표하는 한편, 복직 기도회 등과 같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간 결과 이완우는 1977년 1월 25일 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노조는 결국 1978년 3월 끝내 해산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흥제분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청주산선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청주산선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의 역량을 조직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주산선은 노동문제를 당할 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청주산선을 찾는 노동자들에게 법적권리를 설명

69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41쪽을 보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도 정진동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2쪽.

71 「호소문-신흥제분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 분회장 가족 일동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6년 9월 20일.

72 「귀회사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 분회장을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기 위한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위원들의 건의건[수신:신흥제분,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73 「한국 사회 선교 협의회에서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에 건의건[수신:청주신흥제분, 발신: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74 「진정서-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의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15일.

해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시키며 성명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⁷⁵

노동자들의 의식화는 특정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청주산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75년, 1976년 사업비 보조청원서에 보면 노동교육을 매월 1회씩 2년간 실시할 계획을 적고 있고,⁷⁶ 1976년 활동비 지출을 보면 1~8월까지 거의 매달 교육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⁷ 1981년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교육 활동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을 교육하는데 1주일에 1회씩 지역별로 순방하면서 지역 그룹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는 사회의식교육, 정치경제 교육, 현재 투쟁 중인 사건에 대한 토론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에도 이러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⁷⁸ 정기적인 회원 교육뿐만 아니라 특별 집회나 강연회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의식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는데, 산선 사무실을 여러 번 옮기는 가운데 어떤 때는 사무실 아래 다실에서 시국강연, 인권강연 등을 여러 차례 추진하기도 하였다.⁷⁹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는 노동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청주산선은 1976년 2월 활빈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후 노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게 된다. 노동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설교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인간다운 삶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도는 노동자 농민들의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내용을, 찬송은 민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광고 또한 민중의 투쟁 경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⁸⁰ 이 같은 예배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의식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예배라는 매주 일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체를 확인하고 조직화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은 충

75 정진동, 앞의 책(1992), 126쪽.

76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사업활동보고서와 1975년, 1976사업비 보조청원서」, 《오픈아카이브》, 1976년, 10쪽.

77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2~3쪽.

78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3쪽.

79 정진동, 앞의 책(1992), 103쪽.

80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2쪽.

북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생존권 쟁취 지원

청주산전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 왔다. 노동 사건을 그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노조설립 2건, 근로조건 개선 2건, 단식투쟁 1건, 부당전출 및 정직 2건, 부당해고 7건, 산업재해 5건, 체불임금 10건, 퇴직금 17건에 대한 대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노조설립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들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존권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한 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였으며, 다음으로 부당인사 조치, 산업재해, 근로조건개선 순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투쟁 방식은 진정서·탄원서·성명서 등 각종 문서의 작성 및 배포, 언론을 통한 공론화, 강연회와 집회 개최, 그리고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청주지역에서 큰 관심을 보인 사건 중 하나는 청주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다가 두 눈을 모두 실명한 박석화 양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이었다.⁸¹ 박석화는 1954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청주연초제조창에 입사해 20년간 근무하였다. 2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친 사망 시 2일을 결근했을 뿐 장기 근속하여 수차례 표창까지 받았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7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지자 중앙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신과로, 신경과로, 영양실조, 니코틴 함유로 병이 났으니 6개월을 치료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제조창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개인 사비로 2개월 동안 치료하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포기하고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결국 3년 전에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고 실명 후에도 3년간 개근하였다. 그런데 1974년 3월 5일 회사로부터 강제휴직을 당하고 봉급도 3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혼기도 놓치고 팔순이 된 노모와 단칸방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81 정진동, 앞의 책(1992), 96쪽.

있던 그녀는 주위에 도움 청할 곳을 수소문하던 중 청주산선을 찾아오게 된다.⁸²

1974년 4월 9일 교인을 통해 알게 된 청주산선과 접촉하여 시작된 이 싸움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⁸³ 이 기간 많은 단체들이 후원하며 수십 건의 건의서, 진정서, 청구서, 호소문을 사회 각계각층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산재 문제가 라디오방송, 《기독교공보》, 《크리스찬신문》 등에 보도되며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다. 박석화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주산선의 노력은 1976년 4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이후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이태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이첩하고 청주산선은 이 일을 마무리 짓게 된다.⁸⁴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한 명의 여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청주산선이 한 생명의 소중함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78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15일 청주산선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단식투쟁은 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노동자, 농민들이 피해받은 다음 6가지 사건에 대해 청주산선을 중심으로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이 함께 단식을 시작했다.

신흥제분의 하청업체인 신흥기업과 삼진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퇴사당한 13명의 근로자는 이제는 없어진 하청업체를 대신해 신흥제분에게 수개월간 퇴직금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회사가 불응하였고, 이에 청주산선의 도움으로 집단 고발을 하였으나 청주지검으로부터 신흥제분은 책임이 없다는 무혐의 처리를 받고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⁸⁵

조광피혁은 모피와 가죽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무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회사

82 「진정서-청주연초제조창에서 20년 근무중에 혼기마저 잃고 양안이 실명한 박석화 양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진정진」, 《오픈아카이브》, 1975년 3월 20일.

83 「[연초제조창 박석화씨 사건 관련자료]논쟁문제처리기록표」, 《오픈아카이브》, 1974년 4월 9일, 1쪽.

84 「청주 도시산업선교 사건역사」, 《오픈아카이브》, 1980년 4월 1일, 3쪽.

85 「[신흥제분 퇴직금 관련자료]신흥제분은 우리의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수신:신흥제분 사장, 발신:김태안 외 12명]」, 《오픈아카이브》, 1977년 10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456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4쪽.

였다. 특근수당도 적게 지급하고, 휴일도 1, 3주만 휴무를 했다. 소가족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해가 발생했다. 조광피혁에서 근무하던 김병하는 장갑을 자주 갈아 달라, 냄새가 너무 심한 화장실에 후황을 달아 달라, 일요일은 쉬게 해 달라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로 부당전출을 당하게 된다. 홀어머니와 6남매의 동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전출 가게 되어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회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다.⁸⁶

이러한 사건 외에도 대성여객 버스를 타고 가다 안내양의 잘못으로 개문발차할 때 다리 난간으로 떨어져 한쪽 팔이 완전 불구가 되었으나 대성여객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박성세 씨 사건, 땅을 사서 몇 년간 경작하다 등기이전을 부탁했으나 오히려 맞아 죽고 땅까지 빼앗긴 장월용 씨 사건, 정부로부터 땅을 사고도 행정공무원들의 횡포와 잘못으로 다시 땅을 빼앗긴 한천동 씨의 사건, 땅을 사고도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박창우 씨 사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⁸⁷

1년 이상을 이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던 민중들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정진동은 1978년 3월 15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게 된다. 17일부터는 조순형 전도사와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일부 가족들도 함께 단식에 합류하였다. 단식투쟁을 하며 매주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 특별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4월 17일 이 기도회에서 설교한 인명진 목사는 설교 내용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투쟁 결과 신흥제분 노동자들은 단식 13일 만에 퇴직금을 받아 냈고, 조광피혁 김병하도 23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은 상황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이에 단식을 멈추고 장기농성으로 투쟁을 선회하였지만 결국 나머지 사건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정진동의 장남 정법영의 의문사로 7월 12일 투쟁을 중단

86 「18일간 단식기도하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원들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8년 4월 2일.

87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하게 된다.⁸⁸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이후 어떤 집회나 시위도 일체 허락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식투쟁은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10여 명의 기관원들은 단식투쟁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단식기도회가 시작된 날부터 교회 아래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잠복하면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조사, 감시, 미행, 몸수색까지 자행했다.⁸⁹ 이러한 상황에서 정진동의 아들 정법영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단식투쟁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던 정법영은 평소에 술을 먹지 않던 성격이었는데 6월 25일 갑자기 술에 취해 돌아왔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이끌려 그들이 준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잦았는데 7월 4일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또 술을 먹고 혼자 성가의원을 찾아가 약을 먹었다면서 치료를 부탁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정진동이 찾아갔으나 정법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7월 8일 결국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2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⁹⁰ 정황상 정법영의 죽음은 국가의 탄압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정법영의 죽음으로 농성은 중단되었고 농민들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아들의 죽음은 청주산선이 겪은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수시로 국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오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억울하게 해고당하거나 휴일이 없고 강제 잔업에다 관리인들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이들”⁹¹이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8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앞의 책(1984), 456~457쪽;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89 「성명서[신흥제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존권의 정당한 권리 관철을 위한 단식기도 및 억울함 항거]」, 《오픈아카이브》, 1978년 3월 26일.

90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장남 (묘연한 죽음을 한) 鄭法泳 君」, 《오픈아카이브》, 1979년 3월 1일, 13쪽.

91 정진동, 앞의 책(1992), 127쪽.

찾아갔지만 실패했거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구제받지 못하다 우연히 가난한 이들을 대변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시산업선교에 찾아왔던 것이다.”⁹² 청주산선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 없는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곳이었다. 청주산선의 주된 역할은 이처럼 노동자가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청주산선은 수많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네트워크 연대 구축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외곽지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대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나가기도 하였다. 청주시청 청소부 근로개선 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 《충청일보》, 《크리스찬신문》, 《기독교공보》 등에 기사화되면서⁹³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찬신문》과 《기독교공보》는 청주산선에서 여는 세미나에 후원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⁹⁴ 이들 언론기관이 기사를 통해 운동을 연대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기관선교 쪽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협의회, Y.W.C.A., Y.M.C.A. 등에서도 동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⁹⁵ 정진동이 청년단체인 기독교청년연합회(EYC), Y.M.C.A., Y.W.C.A.와 연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회고⁹⁶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청주산선의 활동에 연대 지원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주지역 종교계 주요 인사들과 서울의 저명한 인사들이 연합하여 ‘청주시청청소부근로기준수호

92 정진동, 위의 책(1992), 92쪽.

93 허석렬 외,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충북』(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22~25쪽.

94 「1973년도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73년, 4쪽.

95 정진동, 앞의 책(1992), 42쪽.

96 정진동, 위의 책(1992), 115쪽.

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주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청주 산선을 통한 연대 운동의 한 측면을 보여 준다.⁹⁷

신흥제분과 관련해, 1974년 11월 부당해고 당한 한월한 외 3명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 건의 건의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이 과정에 기독교년 단체인 C.C.C., Y.M.C.A.,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가 함께 참여하였다.⁹⁸ 이후 1976년 말 이완우 분회장의 복직 투쟁에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도시산업선교위원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시산업선교회 연합회 등이 호소문, 건의서, 진정서 등을 발표하며 동참하였다. 1977년 1월 초에는 이완우의 복직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때 재야 및 기독교 유명인사인 함석헌, 김상근, 이재정이 초빙되었다.⁹⁹ 이러한 지원은 회사와 공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에서 설명한 청주연초제조창 박석화 사건과 단식투쟁에서도 청주산선을 통한 외부 조직과 인사들의 연대 지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청주산선에 의해 박석화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1974년 9월부터 충청북도 내 기독교 종교단체들(산업선교회, 청주시 성직자회, 충북노회교역자회, 청주제일교회, 제일교회여선교회, 청주YWCA, 청주YMCA, 청주CCC, 기장충북노회성직자)이 박석화 씨의 실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기 시작했다.¹⁰⁰ 1975년 3월에는 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연대 지원이 이어졌다.¹⁰¹ 1978년 3월에 시작한 단식투쟁 때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 특별기도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함석헌, 성래운, 문익환, 백기완, 고은, 안광수, 인명진 등이 참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목이

97 「청주시청 청소부근 근로기준 수호위원회의 건의서[수산:채동환 시장], 《오픈아카이브》, 1973년; 박만순, 앞의 책(2025), 109쪽.

98 「청주 도시산업선교 사건역사, 《오픈아카이브》, 1980년 4월 1일.

99 정진동, 앞의 책(1992), 86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45쪽.

100 허석렬 외, 앞의 책(2005), 30쪽.

101 「진정서-청주연초제조창에서 20년 근무중에 혼기마저 잃고 양안이 실명한 박석화 양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진정진, 《오픈아카이브》, 1975년 3월 20일.

집중되기도 했다.¹⁰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주산선은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양한 조직과 인물들을 동원해 투쟁을 지원하며 격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청주산선이 연대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사회에서 청주산선의 실천이 힘없고 연약한 민중들의 삶을 돕는 일이었기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한 단체와 인사들이 동참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정진동 개인이 형성한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촌목회를 실천했던 정진동은 산업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산업선교 실무자로 선발되고 실무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조지송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와 깊은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³ 조지송은 1964년부터 영등포산업선교 실무자로 부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선교에 몸담아 왔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에큐메니칼 진영의 여러 인사들과 관계를 맺어 왔다.¹⁰⁴ 정진동은 조지송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하는데 청주산선을 도와준 다양한 사람들은 조지송과의 관계로부터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진동은 청주산선 활동 당시 알게 된 동지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한국교회협의회 총무였던 김관석 목사(현 새누리 신문사장), 이권찬·이의호 목사(당시 예장 전도부 총무이며 위원장임), 당시 함께 길을 간 인명진 목사(현 갈릴리 교회 시무), 김경락 목사(현 외국거주), 안광수 목사(당시 교회협의회 실무자), 조화순 목사(당시 인천 통일 방직 노사분규 주범으로 인천 산업선교 총무, 현재 여성인권 운동과 교회갱신 운동을 함), 황효남 목사(당시 감리교 도시산업선교회 총무, 현 외국에 있음), 김영승 목사(당시 동서울 산업선교 총무, 현 일반목회에 시무), 그리고 한국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형규 목사, 권호경 목사, 허병섭 목사,

102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25쪽;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59~60쪽.

103 정진동, 앞의 책(1992), 55쪽

104 서덕석, 『조지송 평전』(파주: 서해문집, 2022), 257~271쪽.

전용환 목사(감리교), 문동환 목사, 문익환 목사, 김동완 목사(인권위 사무국장), 조남기 목사(인권위원장 역임), 조승혁 목사 등, 특히 조승혁 목사는 당시 청주도시산업선교회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분이였다. 그리고 현재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함석헌 선생과 계훈제 선생, 백기완 선생, 현 목민선교에 시무하는 고영근 목사는 산선의 집회가 있을 때 주로 강연을 많이 해 주신 분이기도 하다. 성내훈 총장(당시 광주대학 총장, 현 사망),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이던 이문영 박사, 김낙중 선생, 노중선 선생, 박봉재 교수, 서남동 교수, 김찬국 교수, 이해학 목사, 신상길 목사, 박창빈 목사, 그리고 남양만 선교와 청계천 선교를 한 김진홍 목사(현재 부흥사), 김용복 교수, 이삼열 교수, 한완상 교수, 안병무 교수 등.

국제적으로는 조지오걸, 조지나인란, 오재식 선생, 조지타트, 안재웅 선생(한국 기독교학생 연맹 총무 역임, 현 아시아 교회협의회 도시선교 농촌선교 총무임), 그 외에도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같은 일을 한 동지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¹⁰⁵

정진동 목사는 이러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자들이 소속된 조직과 기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맺음말

청주산선은 1970년대 유신체제라는 억압적 정권의 등장,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도시 노동자들의 문제 확산,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라는 정치·경제 상황 가운데, 도시산업선교가 지난 10년 이후 재편과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정진동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 노동자 회원들의 구성, 외부 원조를 통한 자금 조달,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한 조직의 합법성,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개적인 장

¹⁰⁵ 정진동, 앞의 책(1992), 55~56쪽.

소(사무실), 인간화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가치지향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청주산선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동원된 자원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 청주산선은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외곽지원 단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과 여러 가지 대책 활동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견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및 대책 위원회 결성 등과 같은 조직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청주산선은 자본과 권력의 초법적·비인간적 대우에 맞서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성 회복을 쟁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했다.

청주산선의 이 같은 활동은 조지송이 실무자로 있던 영등포산업선교회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차이를 보였다.¹⁰⁶ 먼저 회원 구성을 보면 영등포산선은 노동자들이 사업장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으로 참여했던 반면, 청주산선은 당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를 보였다. 활동 내용 면에서 영등포산선이 노조조직과 소그룹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청주산선은 생존권 쟁취가 주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영등포산선은 노동문제에 대해 실무자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지녔는데, 청주산선은 실무자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 또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주산선이 지닌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선교를 함께 이끌어 갈 실무진이 부족했다. 영등포산선은 조지송 외에 다수의 실무자와 훈련생들이 거쳐 가며 함께 했는데 청주산선은 그런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어려운 자금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노회에서 산업선교위원회를 해체한 후 독자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자금 부족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회원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106 197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서울: 영등포산업선교회, 1998), 103~185쪽 참고.

노동자들이 산선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지속적으로 회원으로 남아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회원 확보의 부족은 운영자금의 자립과 조직역량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주산선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서도 1980년대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청주산선이 이후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하며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정진동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02년 9월.
- 「조순형 녹취문」, 《오픈아카이브》, 2017년 7월.
- 「[4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4월 7일, 등록번호 00348457.
- 「[5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5월 1일, 등록번호 00348459.
- 「[6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6월 1일, 등록번호 00348464.
- 「[8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8월 1일, 등록번호 00348476.
- 「[9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9월 1일, 등록번호 00348483.
- 「[11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11월 2일, 등록번호 00348491.
- 「[12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2년 12월 1일, 등록번호 00348496.
- 「[1973년 1월 활동 내용과 산업선교훈련 일지 자필 정리]」, 《오픈아카이브》, 1973년 1월 1일, 등록번호 00348502.
- 「[신흥제분 퇴직금 관련자료]신흥제분은 우리의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수신:신흥제분사장, 발신:김태안외12명]」, 《오픈아카이브》, 1977년 10월 3일, 등록번호 00427665.
- 「[연초제초창 박석화씨 사건 관련자료]논쟁문제처리기록표」, 《오픈아카이브》, 1974년 4월 9일, 1쪽, 등록번호 00428729.
- 「18일간 단식기도하는 청주도시산업선교회원들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8년 4월 2일, 등록번호 00429473.
- 「1973년도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73년, 등록번호 00520761.
- 「1977년 부활절 성명서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77년 4월 10일, 등록번호 00419203.
- 「1981년도 활동보고서」, 《오픈아카이브》, 1981년, 등록번호 00067410.
- 「귀회사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 분회장을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기 위한 청주도

- 시산업선교회 위원들의 건의건[수신:신홍제분,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등록번호 00416796.
- 「민중선교 20년」, 《오픈아카이브》, 1992년 11월 21일, 11쪽, 등록번호 00832545.
- 「사업비신청서[한국도시산업선교연합회 귀중]」, 《오픈아카이브》, 1973년 9월 26일, 등록번호 00417008.
- 「성명서[신홍제분, 인간답게 살기위한 생존권의 정당한 권리 관철을 위한 단식기도 및 억울함 항거]」, 《오픈아카이브》, 1978년 3월 26일, 등록번호 00423052.
- 「진정서-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시산업선교 연합회의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위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15일, 등록번호 00420790.
- 「진정서-청주연초제조창에서 20년 근무중에 혼기마저 잃고 양안이 실명한 박석화 양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전국연합회 이름으로 진정건」, 《오픈아카이브》, 1975년 3월 20일, 등록번호 00880011.
- 「창립10주년 제2회 청년회지발간 靑年」, 《오픈아카이브》, 1982년 11월 18일, 등록번호 00106258.
- 「청주 도시산업선교 사건역사」, 《오픈아카이브》, 1980년 4월 1일, 3쪽, 등록번호 00331402.
- 「청주도시 산업선교회 사업활동보고서와 1975년, 1976사업비 보조청원서」, 《오픈아카이브》, 1976년, 등록번호 00114504.
- 「청주도시산업선교 활동보고서-4월분 활동보고건[수신:사회선교협의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5월 6일, 등록번호 00114508.
- 「청주도시산업선교 회원들의 유린된 인권 현장상황」, 《오픈아카이브》, 1977년 12월 12일, 등록번호 00424051.
-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 보고 및 사업계획서[수신:위원님들, 발신:청주도시산업선교총무 정진동]」, 《오픈아카이브》, 1976년 8월 26일, 등록번호 00426099.
- 「청주도시산업선교활동보고서(1977. 1. 1부터 1977. 12. 31까지)」, 《오픈아카이브》, 1977년 9월 30일, 등록번호 00419243.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 장남 (묘연한 죽음을 한) 鄭法泳 君」, 《오픈아카이브》, 1979년 3월 1일, 등록번호 00204283.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오픈아카이브》, 1981년, 등록번호 00882281.
- 「청주시청 청소부근 근로기준 수호위원회의 건의서[수신:채동환 시장]」, 《오픈아카이브》, 1973년, 등록번호 00419089.
- 「한국 사회 선교 협의회에서 이완우 분회장 부당해고 철회에 건의건[수신:청주신홍제분, 발신: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오픈아카이브》, 1976년 12월, 등록번호 00416801.

「합의서[청주도시산업선교회와 삼진기업노조]」, 《오픈아카이브》, 1975년 8월 25일, 등록
번호 00421080.
「호소문-신흥제분에서 부당해고된 이완우분회장 가족 일동의 호소문」, 《오픈아카이브》,
1976년 9월 20일, 등록번호 00420811.

2. 논저

구해근(지), 신광영(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김대환, 「(군정30년-박정희시대를 해부한다)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 『역사
비평』 23, 1993, 145~156쪽.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 42, 2015, 35~62쪽.
김용철,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2011,
192~210쪽.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
『산업노동연구』 10-1, 2004, 57~95쪽.
김준, 「민주노조운동과 교회: 개신교 산업선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위임, 『노
동과 발전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교회와 도시산업선교』, 서울: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전도부, 198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2』, 파주: 돌베개, 2009.
박만순, 『정진동, 공동체를 꿈꾸다』, 청주: 고두미, 2025.
서덕석, 『조지송 평전』, 파주: 서해문집, 2022.
성공회대학교사회문화연구소, 『1970년대 산업화 초기 한국노동사 연구: 노동운동을 중
심으로』, 세종: 고용노동부, 2002.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연규홍, 「WCC 50년 역사의 발자취」, 『신학사상』 103, 1998, 83~105쪽.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서울: 영등포산업선
교회, 1998.
유종일, 「박정희 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노사개혁의 방향」, 『한경제발전연구』 3, 1997,
85~105쪽.
이영철,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8-2, 2004, 143~165쪽.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서울: 선인, 2013.
정진동, 『저 평등의 땅에』, 청주: 한솔, 1992.

-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충북민주화운동사』, 서울: 선인, 201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 서울: 풀빛, 1984.
- 홍현영, 「도시산업선교회와 1970년대 노동운동」, 차성환 외,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 허석렬 외,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충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 McAdam, Doug,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McCarthy, John D. & Zald, Mayer N.,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1977, pp. 1212-1241.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Open Archives (Korea Democracy Foundation).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 Ahn, Byungkuk et al., *Yushin and Anti-Yushin*, Seoul: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5.
- Hong, Hyunyoung, "The Urban Industrial Mission and the 1970s Labor Movement," in Cha, Sunghwan, et al.(ed.), *Studies on the 1970s People's Movement*, Seoul: Democracy Movement Foundation, 2005.
- Hur, Seokryul, et al. *Democratization Movement Research Report 2005: Basic Research for Compiling Regional Democratization Movement History-Chungbuk*, Seoul: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5.
- Jang, Sukkyung, *Industrial Mission and the 1970s Labor Movement*, Seoul: Sunin, 2013.
- Jeong, Jindong, *To That Land of Equality*, Cheongju: Hansol, 1992.
- Kim, Daehwan, "30 Years of Military Government-Dissecting the Park Chung-hee Era: Contemporary Lighting of Park Chung-hee'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Critical Review of History*, Vol. 23, 1993, pp. 145-156.
- Kim, Jun, "Democratic Labor Movement and the Church: Focusing on Protestant Industrial Mission," in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for Industrial Society(ed.), *Sociology of Labor and Development*, Seoul: Hanul Academy, 2003.
- Kim, Myoungbae,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Movement of Korean Christianity after Liberation," *Essence and Phenomenon*, Vol. 42, 2015, pp. 35-62.
- Kim, Seunghwan et al., *History of the Chungbuk Democracy Movement*, Seoul: Sunin, 2011.
- Kim, Won, "Democratic Trade Union and Church Organization in 1970s: The Formation and Contradiction of UIM and JOC Discourses,"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 10, No. 1, 2004, pp. 57-95.
- Kim, Yongcheol, "The Park Regime and Labor Control Strategy: Formation and Evolution,"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14, No. 2, 2011, pp. 192-210.
- Koo, Hagen,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Korea Democracy Foundation Research Institute, *History of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Vol. 2*, Paju: Dolbegae, 2009.
- Lee, Okji, *History of the Korean Women Workers' Movement*, Seoul: Hanul Academy, 2002.
- Lee, Wonbo, *History of the Korean Labor Movement: A 100-Year Record*, Seoul: Korea Labour and Society Institute, 2005.
- Lee, Yungchul, "A Political Institutional Analysis of Labor Policy Change in the Early 1970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8, No. 2, 2004, pp. 143-165.
- Park, Mansoon, *Jeong Jin-dong, Dreaming of a Community*, Cheongju: Godumi, 2025.
- Seo, Deokseok, *Biographical Essay on Cho Ji-song*, Paju: Sehae Munjib, 2022.
- Sungkonghoe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Study on Early Industrialization Labor History in Korea in the 1970s: Focusing on Labor Movement History*, Sejong: Ministry of Labor, 2002.

The Industrial Mission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Church and Urban Industrial Mission*, Seoul: The Evangelism Department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Labor Fields and Testimonies*, Seoul: Pulbit, 1984.

Yeon, Kyuhong, "Footsteps of the WCC's 50-Year History,"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Vol. 103, 1998, pp. 83-105.

Yeongdeungpo Industrial Mission 40th Anniversary Planning Committee, *40-Year History of the Yeongdeungpo Industrial Mission*, Seoul: Yeongdeungpo Industrial Mission, 1998.

Yoo, Jongil, "Evaluation of Labor Policy and Direction of Labor-Management Reform in the Park Chunghee Era,"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Vol. 3, 1997, pp. 85-105.

Table

Table 1. Chronological List of Events

Table 2. Relocation of the Cheongju Industrial Mission